

# 분열왕국, 두 갈래의 왕

\* 10/11(월) 열왕기상 ⑥ 15~18장

통일왕국	분열왕국
남유다 / 북이스라엘 12~22장	
두 왕, 두 왕국 12:1~24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2:25~14:20 유다 왕 르호보암 14:21~3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유다 왕 아비암 15:1~8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악한 왕 / 3년 통치</li><li>·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음</li></ul></li><li>▶ 유다 왕 아사 15:9~24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다윗의 길(산당 예외) / 41년 통치</li></ul></li><li>▶ 이스라엘 왕 나답 15:25~31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여로보암의 길 / 2년 통치</li><li>· 여로보암 왕조 끝</li></ul></li><li>▶ 이스라엘 왕 바아사 15:32~16:7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여로보암의 길 / 24년 통치</li><li>· 바아사 왕조 시작</li></ul></li><li>▶ 이스라엘 왕 엘라 16:8~14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악한 왕 / 2년 통치</li><li>· 바아사 왕조 끝</li></ul></li><li>▶ 이스라엘 왕 시므리 16:15~20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여로보암의 길 / 7일 통치</li><li>·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음</li></ul></li><li>▶ 이스라엘 왕 오므리 16:21~28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여로보암의 모든 길 / 12년 통치</li><li>· 오므리 왕조 시작</li></ul></li></ul>
<b>참고도서</b>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성서유니온 열왕기 통성경 길라잡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이스라엘 왕 아합 16:29~22:40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악한 왕 / 22년 통치</li><li>· 여로보암의 죄 + 바알, 아세라 숭배</li><li>· 아합의 아내 이세벨</li><li>· 엘리야의 등장 / 가뭄 / 까마귀</li><li>· 사르밧 여인 이야기</li><li>· 엘리야 vs. 바알의 선지자 450명</li><li>· 사십 주 사십 야, 동행(19:8)</li><li>· 엘리야와 여호와</li><li>· 바알을 섬기지 않은 7,000명 (19:18)</li><li>· 엘리사의 등장</li><li>· 아합과 아람의 전쟁</li><li>· 나봇의 포도원</li><li>· 왕의 갑옷 솔기, 아합의 끝</li></ul></li></ul> <p>유다 왕 여호사밧 22:41~50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22:51~53</p>

## Before 출치며 읽기

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 
하나님을 묵상하며  
통독해 보십시오.

### • 다윗의 길 vs. 여로보암의 길

<다윗>이 기준입니다(15:3).  
다윗의 도(道)를 걷지 않음에도,  
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 
계속해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하십니다.  
다윗언약 덕분입니다(15:4).

## After 묵상하기

내가 걷고 있는  
이 길의 끝에  
무엇이 있습니까?

여로보암은 남유다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

예루살렘 성전 대신, 단과 벤엘로  
제사 장소를 바꾸었습니다.  
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어도,  
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(12:28~32, 13:33~34).  
\*이스라엘의 축제에,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게 했습니다.  
악한 ‘여로보암의 길’입니다.

\*유월절, 칠칠절, 초막절

남유다는 ‘다윗의 길’과 ‘여로보암의 길’을  
왔다리 갔다리, 왕을 따라 오락가락 합니다.  
20명의 남유다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, 히스기야, 요시야와 같이,  
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습니다(15:14, 새번역).

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,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웁니다.  
22년 동안 통치하며, 북이스라엘 땅을 죄악의 ‘우상숭배지’로 만들었습니다(16:30-33).

오므리 왕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, 예후 왕조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 
‘다윗의 길’로 유턴을 시도했으나,  
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, 19명의 왕들이 모두 ‘여로보암의 길’로만 칙진했습니다.

### • 사람의 길 vs. 여호와의 길

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, 그 원인이 담겨있습니다.  
구약의 전쟁은 ‘신들의 전쟁’입니다. 그 전쟁에서 졌고,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됩니다.  
‘하나님이 약하다’는 오해를 받더라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,  
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.

하나님이 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. 이스라엘의 ‘죄’ 때문입니다.  
잘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. ‘그러나’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‘은혜’는 여전합니다(삼하 7:16).

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.  
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.  
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,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.  
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(가지 않은 길, 로버트 프로스트).

분열왕국의 모든 왕들은 두 갈래의 길을 걸었습니다.  
소수는 선한 왕도(王道)를 걸었고, 대다수는 악한 왕의 길을 걸었습니다.

나의 앞에 ‘두 갈래의 길’이 놓여있습니다.  
눈물을 꾹 참고 주먹을 꼭 짚 채,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.  
선택은 나의 뜻입니다. 나의 걸음은 어디를 향합니까?  
하나는 멸망의 길이고, 다른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.

“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.  
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,  
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.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, 너희는 속지 마라.  
생명,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 
(마 7:13-14, 메시지성경).”